

일본, 령고 신선도 유지 골판지 개발
리싸이클 가능 수지 코팅 적용

일본의 령고는 신선도 유지가 염려되는 냉동 식품, 청과물, 수산물 포장에 필요한 골판지를 개발했다. 이 골판지는 내수(耐水) 방수는 물론, 리싸이클 가능한 수지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의 내수(耐水) 골판지는 필름라미네이트나 왁스가공이 주체였으나 이런 재료는 리싸이클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중지한 데 이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시점에서 리싸이클이 가능한 내수제(耐水劑) 코팅 방법이 새롭게 개발돼 2년 전부터 발표하기 시작, 지금까

지 5개 아이템을 개발했다.

우선 '뉴령코팅'은 원지에 코팅한 특수왁스를 골판지 제조시 접착할 때 열로 용융하여 침투시키는 타입의 내수(耐水)골판지이며, '에코프루프' '하이에플'은 리싸이클 가능한 내수제(耐水劑)를 도포하여 수산물, 생선식품, 냉동식품의 냉동보존 등에 채용되고 있다.

'에코프루프'는 특히 사과 보존용으로 개발되어 통상 에코프루프와 내수(耐水)원지를 조합시켜 신뢰성이 높은 내수(耐水)기능과 리싸이클성을 가능케 했다.

또한 '하이뉴령코팅'은 이 중에서 특히 내수성이 강한 신개발 내수(耐水)골판지로 특수초조라이너와 원지가공기술을 조합하여 왁스를 함유한 골판지에 필적하는 높은 내수성(耐水性)과 리싸이클 가능이라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고지를 주원료로 한 강한 내수(耐水)지로 만든 '솔리드보드'는 골판지로는 얻을 수 없는 강한 내수(耐水)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미장(美粧)인 쇄도 가능하고 폐기처리성에도 우수하다.

이에 관해 령고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내수(耐水)골판지는 제법과 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리사이클을 가능하도록 특수한 코팅제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령고로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를 명확히한 상품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령고는 "현재 새로운 시점에서 신선도유지 골판지 등을 개발중이며, 내수(耐水)골판지와 함께 기능성 골판지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미국산 수입고지 관세 부여
미국 철강수입 관세 상승이 원인**

중국이 미국산 수입고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WTO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얼마전 미국이 철강수입에 대해 관세를 높인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나온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수입고지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2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중국의 관세부과 신청이 아직은 제출단계이며 WTO가 이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고지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의 관세부과 발표 후, 바이어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중국의 미국산 수입고지 관련 시장은 거의 멈춰섰고 바이어들은 역으로 자신

들이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정부가 WTO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관세부과를 그대로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속출해 중국바이어들은 유럽 및 일본산 고지쪽에 더욱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미국의 고지공급업자들은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플라스틱 레진 시장 침체
환경보호차원 PP, PE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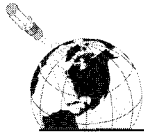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정부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PP, PE의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절반 가까운 3백여개의 제조공장이 문을 닫고 나머지 업체들만 수출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보세 통관하에 가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글라데시 플라스틱제조협회가 대정부 로비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레진 중 방글라데시가 주로 수입하는 제품은 PP, PE, PVC인데, 매년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유화업체가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PP의 경우 싱가포르와 태국이 전체 수입액의 50%이상, PE의 경우 싱가포르와 한국, 말레이시아가 PVC는 태국이 주요 공급국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입업체의 구매행태는 시세에 매



우 민감해서 가격이 낮을 때 대량 구매해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연도별 국별 수입변동이 심한 편이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film grade와 yarn grade용 레진으로 의류 포장, 시멘트, 소금, 설탕 등의 제품 포장용, 플라스틱 병 등의 제조에 쓰인다.

한국의 경우 L/C개설 후 물품 수령까지 2개월이 소요되므로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에 불리한 여건이나 가격에 민감한 현지 수요자를 상대로 현재 재고상황과 시세를 지속 파악함으로써 경쟁적인 견적제시가 가능하다.

일본, 산업폐기물 발생 억제책 마련 과징금제도 필요성 검토

일본 환경성이 산업폐기물의 배출에 과세하는 '産廢稅'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폐기물투기자와 배출사업자에 불법수익을 징수하는 '과징금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환경성은 이미 미에현(三重縣)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폐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에 산업폐기물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전국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국세로써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성은 산폐세는 일정한 과세를 기대할 수 있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방식은 배출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식과 최종처리업자에 과세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몇개 현이 연계해 광역과세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폐세 도입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비과세의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지자체간의 경쟁으로 세율을 높이지는 등 대립구조가 양산되기 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환경성은 산폐세를 국세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과세를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투기된 산업폐기물은 과세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환경성은 과징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불법투기자와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배출사업자에 불법수익을 징수하는 것으로 벌금으로써의 성격은 약하나 위반자로부터 불법수익을 징수함으로써 납세자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점을 불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환경성은 설명했다.

일본, 폐지 1백% 재사용 선물용 포장지로 사용

일본의 다이오(大王)제지, 日本紙共販, 아사히맥주 등 3개사가 폐지 1백%를 활용한 선물용 포장지를 공동으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사히맥주는 “금년 선물용품 시즌인 추겐(中元)부터 폐지 1백% 사용 재생지를 선물용 포장지로 사용하며, 다른 기업에서도 이 포장지 사용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 맥주, 아사히 음료 등 그룹전체의 선물 포장지의 사용량은 연간 약 4백톤에 달하지만



강도와 코스트를 감안, 폐지(古紙)의 30%를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다.

아사히 맥주와 다이오(大王)제지는 “종래의 포장지와 비교해 가격과 강도면에서 손색이 없는 포장용지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2010년 환경시장 40조억원 육박
폐기물 및 리사이클 분야 50% 차지 전망**

오는 2010년이면 일본의 환경비즈니스관련 시장규모가 40조엔에 달할 것이며 특히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분야가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환경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비즈니스 분류를 토대로 실시한 환경비즈니스관련 시장규모 조사 결과, 1997년 현재 24조7천4백26억엔인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40조9백43억엔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도에 비해 62% 증가한 것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이다.

환경성은 특히 폐기물처리·리사이클관련 비즈니스의 확대규모가 전체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환경비즈니스의 활성화대책을 검토, 올 여름까지 검토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OECD의 환경비즈니스 분류를 토대로 실시한 것으로, 환경오염방지분야 중 건설 및 기계설치의 시장규모가 97년 시점에 4조2천5백67억엔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6조6천9백64억엔(97년대비 57.3% 증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오염방지 장치·자재의 제조, 서비스제공분야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토양오염대책에 관

한 신법이 성립함에 따라 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은 자재유효이용 분야에서는 재생소재와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약 및 관리의 항목에서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이같이 환경비즈니스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규모도 97년도의 69만5천명에서 86만7천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후생성은 “독일에서는 환경분야의 고용규모가 1백30만명으로 기계제조업(1백15만명), 식품관련산업(1백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재활용산업의 고용인원이 자동차제조업에 필적하는 약 1백12만명이라는 예를 들면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삼아 다음달경 고용창출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o]

독 자 권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열어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 5

E-mail : kopac@chollian.net